

사회주의문화농촌에 늘어나는 식솔들

공화국에는 노래 《도시처럼 시집와요》가 있다. 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이 노래는 도시처럼 고개 넘어 령을 넘어 뱃길을 타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시집오는것을 형상한 가요이다.

농촌마을이 도시처럼 지 않은 선경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있는 이 노래는 1990년에 창작되었다.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3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노래는 오늘날도 공화국의 농촌들에서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한 속에 농장 청년들만이 아닌 도시처럼 들도 협동농의 주인이 되어 농촌을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러가고있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난 은파군 대청리의 한 농장일꾼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당의 은정속에 대청리가 천지개벽되니 평양에서까지 보금자리를 꾸리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디 그뿐 입니까. 새 마을이 일떠선 후에 도시에서 시집오는 처녀들도 많아져 새 가정이 늘어나니 지난해에만도 수십명의 새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날을 따라 새 식솔들이 계속 늘어나는 우리 대청리입니다.》

어찌 대청리뿐이라. 이제 머지않아 공화국의 농촌마을 그 어디나 새롭게 변모되어 더욱 아름다워질 사회주의리상촌들을 찾아오는 새 식솔들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살기 좋은 문화농촌에 늘어나는 새 식솔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조선로동당의 현명함 정도에 날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새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본사기자 김춘경



줄어드는 농촌인구

—남조선의 농촌실태—

최근 남조선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들이 청년층유출과 고령화심화, 인구감소 등으로 하여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0살녀성인구를 해당 지역의 65살이상 고령층인구수로 나눈 값으로서 위험지수가 0.5미만이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군에 108곳, 3500여개의 읍, 면, 동 가운데 1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빠져나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판매액이 높은 1000여개의 기업들중 743개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것으로 하여 지방의

《수도권》 지역과 대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교육격차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수도권》 지역대학 학생들의 퇴학비율은 3.2%이지만 지방대학은 5%를 넘고있으며 취업률도 지방대학출신들은 59%로서 《수도권》 지역대학출신(66%)보다 낮다고 한다.

의료환경을 놓고보아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시가 3.1명이지만 충청북도 등의 지방은 1.5명밖에 되지

않으며 집에서 종합병원까지의 평균거리도 서울시인 경우 2.85km인 반면에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의 판이한 차이로부터 남조선전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들이 몰려가고 지방이 소멸될 위기가 심화되고있는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대담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박사, 부교수 리호성과 나는 이야기—

최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새로 출판한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가 독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출판사 박사, 부교수 리호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임진조국전쟁은 우리나라 반침략투쟁력사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리 호 성: 옳은 말이다. 임진조국전쟁은 조선인민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국을 보위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일본침략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운 중세 우리 민족사에서 규모가 큰 전인민적인 애국투쟁이었다. 간악한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은 애국심에 불타는 전체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기 자: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하여 총서형식의 도서가 출판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국전쟁총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의 전 력사적행정에 대해 구체적인 력사기록들과 내외의 도서자료, 깊이있는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내용을 보다 종합체계화하였다.

기 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겠으면 한다.

리 호 성: 《임진조국전쟁총서》(군사제도)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전시기 군사제도와 전쟁시기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제도, 신분구성, 병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있다.

《임진조국전쟁총서》(군사전법 및 군사인물)에서도 전쟁시기에 취한 조선봉건왕조의 전략전술적지침들, 판군과 의병들이 특지와 바다싸움에서 적용한 전법들을 체계화하고 그 우수성과 교훈에 대해 해명하였다. 전쟁승리에 기여한 인물들과 그들의 군사적공적도 개략적으로 소개평가하였다.

《임진조국전쟁총서》(민족고전 및 문학유산)에서는 전쟁시기의 민족고전들이 력사기록류, 일기 및 기행문, 문집류, 류서 및 전기류, 금석문류로 세분화되고 그 대표적

것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수많은 문학유산들이 격문, 설화, 소설, 국어시가 등으로 구분되고 작품들의 주제사상적내용이 분석되어있다.

다음으로 《임진조국전쟁총서》(일본침략군의 만행)에서는 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조선인학살 및 랍치만행, 문화재파괴학살만행과 그 후과 등을 전면적으로 개괄하였다. 도서 《임진조국전쟁총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전 력사적과정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방대하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나라 반침략투쟁사를 연구고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 자: 좋은 이야기들 들었어.



조선로동당의 교육증시사상에 떠받들려 2018년 1월에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은 훌륭했다.

이미 신문과 방송으로 보고 들어서 일정한 파악은 있었지만 실지 와보니 류다른 감정을 자아냈다. 대학생교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대학구내를 오가는 대학생들을 보니 홀리간 나의 대학시절이 떠오르면서 이런 멋쟁이대학에서 다시 공부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곳 안내원의 종합해설에 의하면 평양시의 소학교와 학령전어린이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동장으로 불리는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 세기교원양성기지이다.

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러지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짧은 기간에 완공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그러하여 평양교원대학이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정황처리능력을 키우고있었다.

통히 일떠서게 되었다는 안내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김정은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현대적인 교수수단과 기제, 실용적인 과학기술들이 도입된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들과 어린이지능개발기술보급실들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학에서는 소학교교육현실에 조성되는 인식정황, 규율정황, 외적요인에 의한 정황들을 능숙히 처리할수 있는 강의를 체득하도록 한다.

유치원교실과 가상교실에서는 가상놀이프로그램 《금모래 1.0》과 가상안경프로그램 《태양계》, 《북두칠성》, 가상체육유희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늘, 땅, 바다의 지형과 생태이론, 태양계의 움직임과 특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생동하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이날 대학참관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교실이 있었다. 어머니교실이었다.

그이름대로 따뜻한 정이 감도는 교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교실이었다.

목심한 이불이며 꽃베개, 밥상에 놓여있는 숟가락과 저가락, 옷장에 포개져있는 고운 옷들을 보면 어머니의 소중한 손길이 느껴지고 자장가소리도 울릴듯싶었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양교원대학 (2)

평가를 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늘, 땅, 바다의 지형과 생태이론, 태양계의 움직임과 특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생동하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이날 대학참관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교실이 있었다. 어머니교실이었다.

그이름대로 따뜻한 정이 감도는 교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교실이었다.

목심한 이불이며 꽃베개, 밥상에 놓여있는 숟가락과 저가락, 옷장에 포개져있는 고운 옷들을 보면 어머니의 소중한 손길이 느껴지고 자장가소리도 울릴듯싶었다.

그전에 보던 교실과는 표상이 완전히 달랐다. 교실이 라고 하면 의례히 책상과 의자, 칠판부터 생각하는것이 상례였던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 유치원, 애육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

이들을 위해 배려하시는 나라의 관심과 해례를 가슴속 깊게 느꼈수 있었다.

이밖에도 모든 실기실들과 보급실들을 통해 창조적인 소고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조 토론방법, 가상현실교편문제작방법과 가상적인 교수정황제작기술, 가상현실감각기술을 리용한 교육용영상면접기술, 3D인쇄기를 리용한 교편문제작기술 등을 가르치고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부속 소학교와 원격방향교육방법, 소학교, 유치원의 각이한 환경에서 교편물리용방법, 소학교교육에서 교수와 교양의 결합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결합방법 등 수많은 교육방법들도 배워주었다.

대학체육관의 경기홀은 룡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는 물론 다양한 행사도 할수 있도록 다기능홀로 훌륭히 꾸러져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도서관은 컴퓨터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상담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손색없이 꾸러져있었다.

재중동포 김영란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로 하여 민족적색채가 뚜렷이 안겨오는 조선옷.

언제 어디서 보아도 조선옷이 안겨주는 민족적정서와 미학적감흥은 류별나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강직한 조선민족의 넉과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는 훌륭한 전통옷을 가지고있는것은 민족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옷을 잘 만드는것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를 찾았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조선옷의 매력과 멋을 살려가는 의상제작자

—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 소장 리미화 —

명성을 떨치게 한 비결

앞서 우리가 취재한데 의하면 민족의상제작소는 2016년에 진행된 전국조선옷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1등을 함으로써 오랜 참가경력을 가진 단위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도 특등과 1등을 한데 이어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단위들에게 수여하는 단체최우수상을 받아 다시금 명성을 떨치었다고 한다.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에서 만든 옷을 입으면 조선옷의 매력과 우월성이 더 잘 살아난다.

—가공도 섬세하지만 사람들의 나이와 얼굴형태, 피부색 등을 가려 갖춘 색조화와 무늬장식은 나무랄데 없다.

이것은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울려나온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조선옷을 잘 만들어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민족의상제작소 일꾼들의 사업성과와 비결에 대해 취

화소장을 찾아와 직접 조선옷을 만들어줄것을 부탁했다.

시간이 툇 지나서야 우리는 리미화소장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 과정에 그가 남달리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높다는것을 느꼈수 있었다.

—조선옷은 그 력사가 길지만 현재까지 전통적인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분구조들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조선옷의 료판들은 대체로 직선으로 되어있으므로 입으면 몸체의 료판보다도 옷의 료판선이 강조되어 우아하면서도 매우 품위있어 보인다. 그리고 옷의 개별적인 요소들인 동정과 한쌍의 옷고름, 선이나 회장, 색동 등은 우리 민족옷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특히 조선치마저고리는 그 세련된 형태와 무늬, 색깔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족의상중의 하나로 자랑떨치고있다.

의 매력과 멋을 살려나가는 불타는 열정이 조선옷을 잘 만들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비결임을 확신했수 있었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리미화소장이 조선옷제작에서 특기를 보이고있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어려서 남달리 춤을 좋아한 리미화소장은 공연때면 늘 치마저고리를 입고 무대에서 나서곤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치마저고리에 류다른 애착과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치마저고리를 만들어 입고도 했다. 그때만 해도 취미로 하던 조선옷제작이 리미화소장의 마음속에 민족의 넋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그가 조선민속박물관에 배치받았을 때 그의 재능을 알게 된 한 료연구사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옷에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여있어요. 동정과 깃, 소매끝등을 옷의 바탕색과 조화를 이

그후 조선옷제작에 심혈을 바칠 결의를 가다듬은 그는 우리 민족옷의 전통미를 보다 살릴 마음을 안고 해당 부문의 력사학자들과 여러 고전문화를 찾아다니며 고심어린 날과 날을 보냈다. 그리고 조선옷의 동정과 깃, 소매끝등의 색과 바탕색과의 조화를 잘 맞추기 위해 미술가들을 자주 만나 색의 배합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 배자, 마고지 등을 남녀로소와 계절별에 따라 새롭게 착상하고 설계하는데 많은 품을 들였다. 하나하나의 옷을 만들 때마다 여러번이

나 다시 고쳐 설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옷제작에 바쳐온 그의 피라는 노력을 잘 알수 있다.

그의 불같은 열정이 있어 조선민속박물관 민족의상제작소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조선옷의 옷웃과 아래웃은 물론 마고자와 배자를 비롯한 덧옷의 색조화를 보다 세련시켰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미적감정에 맞게 무늬장식을 곁들여주면서도 아름답게 하였다. 특히 료승단을 비롯한 남편의 비단천으로 여러가지 옷을 잘 만들어 우리의 천으로 제작시키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딸과 며느리도 민족의상제작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전통을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조선옷이라고 봅니다.》

조선옷제작에 심혈을 바쳐수십여년, 그 나날에 그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

사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예도 지녔었다.

한생 있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을 깊이 간직하고 그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자랑이 고 증진된 민족의상을 발전시키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딸과 며느리도 민족의상제작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쉬엄쉬엄 일하라고 할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만든 조선옷을 사람들이 즐겨 입을것을 보면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옷을 발전시키는 길에 한생을 바칩니다.》

본사기자 김철

